

불황터널의 끝이 보인다

지난 3개월간 매출증가... 실용서와 소설이 강세

위성계

교보문고 조사홍보과 대리

최근 2,3년간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려온 출판·서점가에 회생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보문고 1/4분기 영업장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22.7%가 신장되어 최근 5년 동안의 실적 중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4% 신장에 그쳤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한 회복세인 것이 확실하다

중대형 서점들 신장세

80년대 이후 꾸준히 완만한 신장세를 보이던 출판·서점가의 매출은 공교롭게도 '책의 해'였던 '93년을 고비로 차츰 하향세로 돌아서, '95년은 매출부진이 극에 달해 교보문고의 영업장 매출 실적으로 볼 때 '81년 개점 이후 최저 성장을 기록했다.

분야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어학 분야와 컴퓨터 대중화에 힘입은 컴퓨터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문학 분야는 도서대여점의 영향으로 최악의 불황을 맞았다.

수년간 심화되던 불황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95년 12월부터이다. 특히 금년초부터 회복세는 점차 두드러져 교보문고 1/4분기의 영업장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22.7%라는 높은 신장을 기록했고, 3월 9일에는 하루 매출로는 사상 유례없이 4억원(서적 부문 만의 영업장 매출)을 돌파했다(대형서점은 해마다 3월 둘째주 토요일에 일일 매출액 신기록을 경신해 왔다). 이날 팔린 도서는 4만6천여권으로 웬만한 서점 전체 도서 수와 맞먹을 정도였다. 다른 중대형 서점들도 10%~40%의 신장세를 기록해 출판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보문고 영업장 매출 신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어학 분야가 36.5%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 분야는 최근 2, 3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신장세를 기록하던 분야로 금년에도 가장 높은 신장을 기록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높은 신장세를 보인 분야는 의외로 36.3% 신장한 아동 분야였다. 3위는 36.1%의 유아·주부, 4위는 31.4%의 컴퓨터,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최근 2,3년간 실용서의 급격한 신장세에 아동·유아 분야의 다양한 책들이 폭넓게 인기를 끌었고 소설분야가 지난해 극심한 침체를 벗고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출판시장의 회복세는 한동안 위축돼 있던 출판사들에게 상당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서점매출의 신장은 실용서와 어학·교재, 아동서와 소설류의 강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위는 22.8%의 소설로 위에서 언급한 다섯 분야의 도서들이 금년 1/4분기 매출 신장을 주도했다.

소설 분야 뚜렷한 증가

위와 같은 매출 신장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첫째, 어학, 컴퓨터 분야가 강세를 보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현상과 맞물린 실용서가 최근 2, 3년간의 급격한 신장세에 이어 금년에도 가장 양호한 신장세를 보였다. 즉 사회현상의 변화는 여전히 출판시장 흐름의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둘째, 아동·유아 분야에서는 최근 수능 시험 및 논술고사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의 폭넓은 독서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다양하고 수준높은 동화책과 지능개발을 위해 놀이와 학습을 접목한 토이북, 어학교재 등이 폭넓게 인기를 끌었다.

세번째로는 소설 분야가 지난해의 극심한 침체를 벗고 높은 신장세를 기록한 것인데 그 원인을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먼저 도서대여점의 한계와 폐해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소설 분야가 그 피해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대여점을 통한 독서란 일부 베스트셀러 소설과 질 낮은 대중소설이 대부분이어서 편향적인 독서를 부추기고, 전반적인 독서

수준을 떨어뜨리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서대여점을 이용하던 독자들이 서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가지 요인은 '수능 시험'의 긍정적 영향이 청소년 교양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소설 부문이 매출 증가 뿐만 아니라 판매 추이에 있어서도 대형 베스트셀러 위주가 아닌 다양한 국내의 고전과 현대문학 작품들이 널리 판매된 것을 보더라도 확실히 드러난다. 소설 분야 도서의 매출 증가는 신장세가 비록 어학, 아동, 컴퓨터 등에 못미친다 할 지라도 최근의 도서 판매 동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출판시장의 회복세는 한동안 위축되어 있던 출판사들에게 상당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일부 실용서 분야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일부 단행본 전문 출판사들이 어학, 컴퓨터 서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문학 부문의 회복은 출판사들의 출판의욕을 고취시켜 다양한 청소년 교양서를 기획해내는 건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독자들의 도서 구입 경향이 대형서

점으로 몰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서점의 매출 증가가 곧바로 출판계의 경기 회복과 직결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난 3개월간의 매출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출판·서점업계가 오랜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아직 낙관은 일러

그러나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출판시장 개방은 유통구조가 취약한 국내 출판계를 뒤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유통기구 설립도 아직까지는 전망이 불투명한 편이다. 더욱이 출판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축으로 작용하던 '도서정가제'가 내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현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국민의 정신적 자양분 공급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는 출판·서점인들이 있는 한 우리 출판계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다고 믿는다. 모처럼 회복된 출판 경기가 일시적인 거품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모든 출판·서점인들에게 제안하며 글을 맺는다. ❖